

가금위생 해외뉴스

오경록 ▶ 코너



오 경 록
남덕 쌔니테크

□ 우루과이라운드의 동식물검역에 합의

일본 농림수산성이 가트,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시장접근 개선과 더불어 동물검역, 위생조치에 대하여 최종 합의된 협정내용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① 가맹국은 본 협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하여 검역, 위생조치를 취할 권리를 갖는다.
- ④ 검역, 위생조치는 사람,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과학적인 원리에 따라서 적용된다.
- ⑤ 동일한 조건하에 있는 나라사이에 자기마음대로 부당한 차별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국제무역의 위장된 제한 또는 부당한 장애를 만들어 검역, 위생조치를 해서는 안된다.
- ⑥ 관련된 국제 기준이 있을 경우 가맹국은 원칙적으로 그 기준에 따라서 검역, 위생조치를 취한다.
- ⑦ 과학적인 정당성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국제기준 보다도 높은 수준의 보호수준을 정하여 검역, 위생조치를 취하면 유지할 수 있다.
- ⑧ 가맹국은 전문 국제기관과 협력을 한다.
- ⑨ 상황에 적합한 위험성의 평가에 따라서 검역, 위생조치를 한다.
- ⑩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국제전문기관으로부터 입수 가능한 정보와 다른 나라에서 채용하고 있는 조치 등에 따라서 잠정적인 조치를 취한다.
- ⑪ 가맹국은 병해충 또는 질병의 무발생지역 그리고 저유행지역의 개념을 인정한다.
- ⑫ 가맹국으로부터 타당한 조회에 응하기 위하여 조회소를 설치한다.
- ⑬ 관리, 검사 그리고 인가의 수속은 부당하게 지연시키지 않으며 국내 대우에서 적용되는 정도를 확보한다.
- ⑭ 협정의 운용기관으로 위원회를 설치한다.
- ⑮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는 분쟁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서 소위원회는 기술적 조언을 할 기술전문부회를 설치할 수 있다.

(AH. 94. 3)

□ 도계장에서 장관 출혈병변

가고시마현의 식육 위생검사소에서 도계된 육계의 장기를 조사한 결과 48.9%의 장관에 출혈병변이 있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출혈병변을 콕시디움 감염과 어느정도 관계가 있는지 여러가지 시험을 실시하였던 바 191예 가운데 조직학적으로 콕시디움증을 인정하는 것은 44예이었다.

그러나 병리학적으로 콕시디움 기생과 출혈병변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30예(15.7%)이었다. 부위별로는 십이지장에서 11.8%, 소장상부에서 1.7%, 소장하부에서 3.0%, 맹장에서 82.6%로 출혈병변과 콕시디움 기생과의 관련성은 맹장이 제일 높았다.

이러한 결과로 장관의 출혈병변이 꼭 콕시디움 기생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다른 여러가지 장관출혈요인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AH 94. 5)

□ 혹서기 스트레스 예방

단열이 잘 된 무창계사에 쿨링패드나 안개분무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계사에서는 열사나 혹서기 스트레스에 문제가 없지만 일반적인 재래식 계사에서는 여름철 혹서기에 생산성의 저하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계사의 실온이 27°C 이상이 되면 1°C 상승에 따라 산란계의 사료섭취량은 1.5~2%씩 떨어지고 난중은 0.2~0.3g 감소한다.

칼슘, 인, 비타민D의 섭취량 감소에 따라 난각질이 떨어지고 등외란의 수가 약 1%씩 증가

한다.

사육밀도를 낮추고 지붕을 백색 또는 반사성 재질로 하고 계사사이에 나무를 심거나 차양막을 쳐서 그늘을 만든다.

지붕에 물을 뿌릴 수 있는 급수라인을 설치하기도 한다. 백열등이나 나트리움 등에 의한 열도 무시 못하므로 형광등으로 대치하고 계사폭이 9m 이상이 되거나 계사간격이 계사폭보다 좁으면 계사 가운데에 환기팬을 설치하여 높은 습도의 내부열을 밖으로 몰아낸다.

닭에게 직접 물을 뿌리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내어 높은 습도로 인한 질식사를 유발할 수 있다.

메치오닌과 라이신을 급이하거나 지방으로 에너지를 보급하거나 하고 사료중의 여분의 단백질을 제거하여 대사성 열량증가를 줄인다.

지방은 에너지는 크지만 열량증가는 작아 사료중 3~4% 배합이 좋다.

식물성 유지에 함유된 리노레인산은 난중을 크게하는 효과가 있다.

1일급이기의 조작회수를 증가하면 그 자극에 따라 사료섭취량이 증가한다. 심야급이 또는 야간의 간헐조명도 주간의 혹서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음수나 사료중에 중탄산 나트리움을 첨가하면 난각질의 개선에 효과가 있다.

지용성비타민 A, D, E와 K, 수용성비타민 B군과 C를 혹서스트레스시에 냉수에 첨가하여 주면 사료섭취량 감소에 따른 비타민섭취량 감소를 보충하는데 효과를 볼 수 있다.

(NK. 94. 7)